

마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은석교회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않으며 지혜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칭신 차려 껴어서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만 느낍니다.



칭신 차려 껴어서 신자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죄합니다.

떠나서 가자

신윤식

떠나서 가자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집착하던 것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우월감에서

떠나서 가자
만약을 생각지 말고
장래 일에 불안해하지 말고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해도
작심함으로
떠나서 가자

자족함 있으리니
복의 근원 만나리니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소리치는 곳으로
떠나서 가자

평강으로 안아 가시는 이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향해
영원한 하늘의 세계만을 바라보고
떠나서 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10.23

발행호수 제19권 39호

중 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관심이 자기 구원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다만 자신이 구원 받는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자기 구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복과 심판이라는 미래에서의 구원, 이것이 신앙의 목적과 이유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본문의 비유를 대한다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임금의 오른쪽에 있게 된 양이 왜 오른쪽에 있게 되었는가에 중점을 두면서 선행을 베풀되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교훈적 의미를 찾아서 그대로 실천하지는 내용으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칭찬 받은 양처럼 행하여 우리도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자' 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과 염소는 스스로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은 양으로 태어났고 염소는 염소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양은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 역시 처음부터 염소일 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구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 구원을 위해 뭔가 행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헛된 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심판은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심판은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은 신자를 가리키고 염소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심판을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서 신자는

주일오전설교

마 25:31-46

양과 염소 비유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그러한 의미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고 말합니다.

임금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받을 복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복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양은 이미 창세로부터 복 받을 자로 선택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에 있을 양과 염소의 구분은 그동안의 행실이나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복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복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로 선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창세전부터 오른쪽에 세움 받을 자로 선택된 자가 있고, 그가 어떻게 살았든 그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면 인간에게 삶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항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두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자신의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과 염소는 처음부터 양이고 염소입니다. 염소가 최고 수준의 선행을 하고 많은 실천을 했다고 해도 양이 될 수가 없고 양이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염소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구원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자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니까 양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기대일 뿐이지 양과 염소의 구분은 오직 목자에 의해서만 되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비유는 양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양과 같은 일을 함으로써 양이 되자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입니다. 아버지께 복 받을 자로 택함 받은 신자의 사람됨이 그 행한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5,36절을 보면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양은 곧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사람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려운 형편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40절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 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는 선행과는 다른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든 자를 예수님 자신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신 고난과 핍박의 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환대하는데 예수님 스스로 고의로 그 같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별 볼일 없는 자가 자신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므로써 예수님을 고난과 핍박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알기에 그 길이 곧 믿음이 이끄는 길임을 시인하며 그 길로 인

도 받으며 견디고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기를 아는 것이고, 이 삶과 신앙은 복음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를 어떻게 대하는 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극히 작은 자’ 는 복음으로 목말라 하며 복음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좇고 복음으로 살자 하며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세움 받은 의인들은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7절)**로 시작하여 자신들이 주를 위해 한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가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고 영접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신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의도적이 아니며 의식적이지도 않고 내 안에 자리한 복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저들을 영접한다’ 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전혀 계산하지 않고 복음이 이끄는 바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했다’ 고 하실 때 ‘제가 언제 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4절)**라고 항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를 위해 행한 것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자기들의 행함을 무시하고 부인하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참되다 할 수 없으며 자기 구원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거짓된 신앙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곧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이 선뜻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핍박과 고난이 없는 편만한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핍박과 고난이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세상에 사탄의 권세는 분명히 있고, 그 권세 아래서 유혹을 받으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현실인데도 사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경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도리어 고난과 핍박이 없는 것을 은혜가 넘치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잘 살면 복 받은 것이고, 예배당 건물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핍박은 복한 같은 곳에서나 해당되는 말이지 지금의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 때문에 함께 하는 관계라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에 게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형제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평안이 중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부인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에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며 자신들의 행함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자를 고난으로 이끌어 갑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가신 길은 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자로 함께 하는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며 다른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에 함께 할 관계에 있는 것이지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 비웃고 비난할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한다면 우리의 신자 됨은 지극히 작은 자, 즉 복음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가는 신자를 마음으로 영접하며 그 길에 함께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러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은 복음을 만났을 때 그 참됨이 증거 되는 것입니다.

우 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을 율법 시대, 신약을 복음 시대로 구분합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인해 구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도 이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이 주어졌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율법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 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을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자신에게서 죄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 또한 복음이며 복음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 역시 복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머물게 하며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복음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간의 행함에 치우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은 배타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주일오후설교
룸 10:5-10

교회와 구원

(교회10강 9.11일 설교)

라" (13절)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 안에서는 한 분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은 한 몸의 지체라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세계입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이해한다면 이 같은 사실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함께 하고 있고 교회는 연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한 개인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영광과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자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를 주로 시인을 하고 믿는 신자가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신자가 함께 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한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를 깨뜨리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 이시로다' 는 노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구원 받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써 구원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면 교회는 차별이 없는 관계로 구원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고,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교회는 개인의 노력과 열심을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받고 누리고 믿는 자로 함께 합니다.

이것이 교회며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할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합니다. 누구 하나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계는 차별이 없는 공평의 세계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의 세계가 구원 받은 자가 함께 하는 교회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임을 증거하는 길이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신자가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관계를 맺고 친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한 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신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관계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세상 영광도 개입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고 구원으로 인한 감사의 노래일 뿐이지 그 누구의 열심도 공로도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현대 교회는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벗어 버렸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가시적 교회의 부흥을 통한 사람의 영광에 더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문제없으면 된다' 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만 구원 받으면 된다' 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 속성에 의한 생각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되고, 문제가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과 책망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구원 받은 자의 세계가 아닙니다.

몸은 같은 길을 함께 가는 관계입니다. 몸이 가는데 팔과 다리가 싫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팔이 약하다고 해서 떼어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체가 약하든 온 몸이 함께 가는 이것이 구원의 세계라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열심과 노력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오로지 은혜만 고백되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세계이며, 내가 한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도 시기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같은 교회의 관계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마음에 두고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석교회에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서 벗어나 산 적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인자하심과 긍휼을 잊어 버리고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살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면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도 놓지도 않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찌 기쁨과 감사가 없겠습니까? 이것이 구원 받은 신자가 함께 하는 교회라는 것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는 교회의 이런 특성과 본질을 상실해 버리고 전혀 엉뚱한 길로 빠져 들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개인의 심리나 도덕과 윤리적 세계로 빠져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축복을 받는 일에 치우친 욕망의 세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도 구원받은 신자의 세계는 보이지 않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만 보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욕망이 신앙을 이끌어 가는 종교의 세계만 남 무할 뿐입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관계로 함께 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를 살피면서 진리의 길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구원 받은 세계가 어떠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구원 받은 신자가 잊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다.

.....

하 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잘못됨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내용은 5절의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 하고 가서

수요일설교

렘 2:4-8

헛되이 행함

(4강 9.7일 설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너희 조상들이’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헛된 것을 따라 행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조상 때부터 있어왔던 잘못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조상들과 동일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조상들과 동일한 잘못된 길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의 세월을 지내왔다고 해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의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렁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 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 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는 말씀을 보면 5절에서 언급된 조상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을 거치게 됩니다. 그 땅은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누가 인도하셨는가를 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숨 쉬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호위를 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도 여호위를 찾지 않았습니까. 8절을 보면 제사장들부터 율법을 다루는 자들과 관리와 제사장들까지 여호위를 찾지 않고 여호위를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무익한 것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으면서도 조상부터 대대로 자신까지 무익한 것을 좇았을까요?

그들이 헛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것은 우상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점이 우리로서는 쉽게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과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역하며 무익하고 헛된 것을 따랐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항상 현실에만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그 경험은 결국 과거로 흘러가면서 잊혀지고 현재만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현재의 삶에 득이 되는 것을 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좇는 이유이며 하나님을 멀리 하고 무익하며 헛된 것을 좇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의 어떤 의나 선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현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익하고 헛된 것을 따랐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무익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실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한 채 헛되고 무익한 것만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선지자들 역시 현실에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에 없으면 안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을 좇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현실에 도움이 되는 신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도 의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믿음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의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의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를 의의 세계로 인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무익하고 헛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신자는 인생 전부를 생각해야 합니다. 눈앞의 현재만을 보게 되면 인생의 전부는 사라지고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의의 존귀함보다는 현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현재만을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자는 현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것은 현재를 바라보는 사람과 인생 전부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헛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도 하지 못한 채 현재의 이익만 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현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무익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이며 무지입니다.

우리가 유대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역시 현재를 초월하여 살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있었다라면 그들과 같은 길을 갔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무익하고 헛된 것을 따르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을 증거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무익한 것과 헛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다만 사람들의 귀에 즐거움이 되는 것만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현재를 돕고 현재의 삶에 힘이 되는 신으로 변개하여 전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닌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입니다.

현재만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의의 하나님에게서는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세계를 바라보고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로서 헛된 것이 아닌 참된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83장
 교 독 : 33(시72편)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331장
 성 경 : 마 25:31-46
 말 씀 : 양과 염소 비유(15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83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82장
 기 도 : 이애림 집사
 찬 송 : 528장
 성 경 : 엡 4:11-12
 말 씀 : 교회와 직분(교회1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16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7강)

■ 교회소식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영민 장로 오후 - 박철현 집사

'은혜 만능주의' 설교 타락시키는 원흉

한국 교회만큼 은혜 타령이 많은 교회는 없을 것이다. 흡사 서양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아이 러브 유'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실제로 사랑이 많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자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혜 만능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은혜를 무시하고 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은혜는 거의 인간론적 범주로 축소되어 있다.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기분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가 좋았어도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이들에게 은혜는 사람의 기분에 불과한 것이다. 혹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청량제 같은 정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배타적 행위인 은혜를 이렇게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한국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는가? 은혜 만능주의는 한국 교회의 설교를 타락시키는 원흉이다.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위협하는 설교를 우리는 자주 본다. 오늘의 설교자들은 흡사 손님들에게 술을 많이 팔려고 교태를 부리는 작부와 다를 게 없다.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설교자는 길을 가지 않고 무엇을 팔려고만 하는 것일까? 물론 그들은 그게 모두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 과연 그럴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것이다. 순수한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는 설교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목회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설교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참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다는 명분만으로 기업적 가치와 기술로 목회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현상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일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만 하겠다.

설교의 진정성은 있지만 은혜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설교자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은혜를 무시하라" 이다. 무슨 뜻인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강박증, 조급증을 버리라는 말이다. 복음의 긴박성이야 우리에게 늘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 청중이 은혜를 받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이다. 청중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도 그것은 껍질에 불과할 수도 있다. 설교자가 구원을 결정할 수 없듯이 은혜도 역시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대목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설교자들은 청중들을 들들 뉘우면서까지 은혜를 강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은혜 자체에 대한 해명이다. 그것의 효과는 오직 성령의 몫이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해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열려있는 세계인 것처럼 은혜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층적 영성에 근거해서 이 은혜를 해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층적 영성만으로는 우리의 힘이 모자란 마당에 신자들이 은혜를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신경 쓸 틈이 어디 있는가? 이런데 신경을 쓴다는 사실은 본인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열어가는 세계를 전혀 맛보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정용섭 목사/